

대성지구 주거개선사업 시행사에 특혜 질타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시정 질문 등 3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8일 폐회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시가 심의를 요청한 내년도 예산 6228억 가운데 총 28억26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12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시정 질문을 펼쳤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을 간추려 봤다.

◇난택상 드러낸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매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취지와 무관하게 시행사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복성 의원은 “두 차례의 사업변경을 통해 ‘탐상형’ 구조에서 ‘판상형’ 구조로 바뀌었고, 사업유형도 당초 ‘국민임대+공공분양’이었으나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바뀌면서 층수도 최고 22층에서 25층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탐상형 구조는 일조권과 조망권이 좋고 사생활 침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반면 판상형은 성냥갑 모양의 일자형 구조로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일조권과 조망권은 물론 녹지공간 확보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가 많다.

또 국민임대는 30년 임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는 10년에 불과하고, 전용면적 39㎡(17평형)의 기존 임대기도 국민임대는 보증금 1369만원에 월 10만1550원이지만, 변경된 공공임대는 보증금 1771만원에 월 35만원으로 3배나 비싸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주민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행사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사업으로 변질된 셈이다.

게다가 철거 이전에 대상동 원주민은 673세대였다. 이들 중 281세대는 보상을 받아 이주했고, 대상자 392세대 가운데 임주를 희망한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주요 쟁점 간추려보니



목포시의회의는 지난 15~17일 사흘간 시정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을 펼쳤다. 장복성 의원의 질문에 박홍을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공공임대 전환에 저소득층 비싼 보증금·월 임대료 부담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4년 넘도록 애물단지 방치 지적

209세대중 현재 단 6세대만이 임주를 신청했다. 서민주거 안정은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준다는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전락했다.

특히 장 의원은 “두 차례의 사업 변경을 하면서 목포시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면통보를 제대로 안 해, 대상자 1800명 중 고작 2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강행했고, 주민공람도 단 3명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시세의 100분의 90 이하로 산정돼야 한다고 돼있다”고 전제 한 뒤 “주변 시세는 동 평형대 아파트가 7000만~8000만원인데 비해 공공임대 22평형

이 1억17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턱없이 비싼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의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체 사업부지 7만239㎡ 가운데 국·공유지가 2만2372㎡를 차지해 거의 5분의 2 정도를 무상으로 양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행정절차 이행시 제시의견 미반영 ▲국·공유지 무상양여 ▲임대가 산출 근거 미제시 ▲높은 임대가로 인한 재정착률 미미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국민임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박홍을 시장은 답변에서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시에 남아있는 모든 행정권한

을 활용해 시행사 대표를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밑빠진 독’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시가 94억원을 들여 건립한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비효율적 운영과 준공이후 4년 6개월 동안 애물단지 방치된 데 따른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경윤 의원은 “사업추진 당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시설·판매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장이나 디자인을 개발해 상품가치를 높여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센터는 입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체 6개 층 가운데 1층과 2층을 제외한 4개 층은 임대자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임대된 일부 상가도 장사가 안 돼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진입도로 공사를 2013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해를 넘겨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초 주력 상품으로 젓갈과 건어물을 선정했으나 모든 수산물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상가에 입주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와 상품 진열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조속한 시일내에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안막을 제거해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의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시정 질문을 위해 역대 의회와 달리 3일 동안 1층 회의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점심을 해결하는 등 시간과 예산을 절약해 귀감이 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주택 10만호 돌파 눈앞

주택보급률 94.5%...세대수는 10만 넘어서

목포시가 주택 10만호(戶) 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대수는 이미 10만 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현황은 9만3877호에 9만9334세대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2만9874호, 공동주택이 5만8549호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택보급률은 94.5%에 달했다.

하지만 시는 올해 들어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면서 10만호 돌파가 조망기에 들어갔으며 세대수는 10만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행정과가 밝힌 공동주택 건축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신안 실크벨리 7차(657세대) ▲광신 프로그래스(623세대) ▲골드클래스 7차(319세대) ▲라송 센트럴 카운티 265세대 ▲용당동 에드가 채움 아파트(256세대) ▲대성지구(1391세대) 등이 신축중이거나 입주자를 모집했다.

올해 2지구 1블록(308세대)과 백련지구(814세대) 등은 착공을 앞두고 있어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주택보급률은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축행정과는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총 18건을 양성화시켰다. 이 특조법은 내년 1월 16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다세대 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빈집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9억1100만원을 들여 167동을 정비했다.

올해도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6동을 정비했으며 내년도 6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대-aT 교류협력 업무협약

농어업인 육성·청년취업 증진



목포대학교(총장 최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 김재수)는 최근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잠재 농·어업인 육성과 청년취업(일자리) 증진, 농·수산물 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식품산업 분야 인재육성 ▲인턴채용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공동 컨설팅 그룹 구성·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농·수산물 정보 핫라인(Hot Line) 구축 등 다양한 교류활동 강화 ▲농촌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목포대는 빛가람 공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다양한 교류협력 강화로 특성과 분야인 친환경 바이오융합 인력양성 및 농·수산물 분야 상호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취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는 지난 10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으로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해 유통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수출진흥 사업과 농·수산물 소비촉진사업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대표적 농·수산물산업 진흥 전문기관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 당초 ‘탐상형’에서 ‘판상형’ 구조로 바뀌고, 사업유형도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바뀌면서 층수도 최고 22층에서 25층으로 변경돼 시행사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목포시가 사업비 94억원을 들여 건립한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입주이후 2년이 지났지만 4개 층이 개점유형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 山 프리모 남여 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0)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력대상자경품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즉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1 (계약시 경품 필요권 포함)
1등: 황금열쇠순금1명(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당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중간 1인 포함)3명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선물2 (기념품(책1), [핸드크림], [지압세로])
선물3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통장지갑], [글라스릭 일제용기세트], [세라믹로팅 냄비]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자력기준
-총자산 10억원 이상 당좌계좌
-당좌계좌 1000만원 이상 가담고액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고액
-생량관계, 자용저축계좌 가입고액
-현재금융 선구자
-자용이세 3년 이상 선구자
-체크카드 신규자(최이상 이용고액)
*경품추첨일까지 경영매수 및 신용 거래자
*상위 자격기준은 특별히 한정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분점: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7가 입구